

2019년 4월 25일

#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 나스닥, 사상 최고치 경신 후 매물 출회 달러화 2017년 5월 이후 최고치

### 미 증시 변화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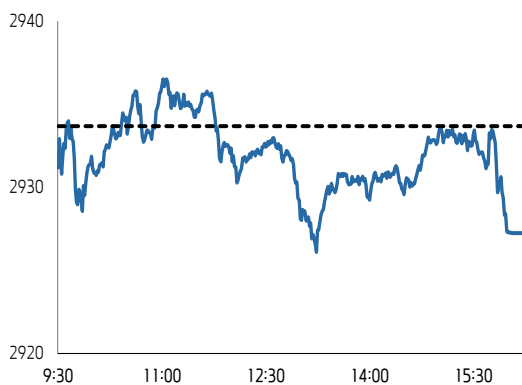
미 증시는 나스닥이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 한 이후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 전환. 특별한 이슈 보다는 개별 기업들의 실적 결과에 따라 등락을 보였으며, 에너지, 바이오, 통신, 대형 기술주들이 하락을 주도. 반면, 반도체와 소매유통업종이 강세를 보이며 낙폭 제한(다우 -0.22%, 나스닥 -0.23%, S&P500 -0.22%, 러셀 2000 +0.19%)

나스닥이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 1 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가 높았지만, 발표된 실적이 예상보다 양호한 결과를 내놓으며 실적 시즌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추정. 다만, 1 분기와 2 분기 실적 전망이 여전히 전년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어 상승을 이어가기에는 힘이 부족한 상태. 더불어 12 개월 Fwd PER 이 5년평균(16.4 배)를 넘어 16.8 배를 기록해 밸류에이션 부담도 영향.

그러다 보니 시장은 개별 기업들의 실적 발표 영향으로 관련 업종이 동반해서 움직이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오늘도 바이오젠이 양호한 결과를 내놓았으나, 향후 전망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자 바이오 업종 전반에 걸쳐 매물이 출회. 캐터필라 또한 양호한 실적 발표 했으나, 중국에서의 가격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자 하락 전환 했으며 이는 산업재 업종 전반에 걸친 매물 출회를 야기. AT&T 실적 부진으로 인한 통신업종 하락.

한편, 장 마감 후 양호한 실적을 발표한 마이크로소프트와 페이스북은 2~5% 급등 중이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 관련 매출이 증가한 데 힘입어 예상보다 양호했다고 발표. 더불어 반도체 장비업체인 램리서치도 견고한 실적을 발표해 시간외로 5% 급등. 반면, 팜리스 업체인 자일링스가 부진한 실적 발표 이후 시간외로 11% 넘게 급락. 이 영향으로 마이크론 등 반도체 관련주들도 시간외로 상승하기도 했으나 일부 매물 출회되며 보험권 혼조 양상을 보임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	지수동락률(%)	Close	D-1	지수	지수동락률(%)	Close	D-1
KOSPI		2,201.03	-0.88	홍콩항셱		29,805.83	-0.53
KOSDAQ		757.82	-0.47	영국		7,471.75	-0.68
DOW		26,597.05	-0.22	독일		12,313.16	+0.63
NASDAQ		8,102.02	-0.23	프랑스		5,576.06	-0.28
S&P 500		2,927.25	-0.22	스페인		9,456.40	-0.74
상하이종합		3,201.61	+0.09	그리스		772.66	-0.48
일본		22,200.00	-0.27	이탈리아		21,724.44	-0.79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 MS, 페이스북 시간외 2~5% 상승 중

텍사스인스트루먼트(+1.76%)은 견고한 실적을 발표한 데 힘입어 상승 했다. 한편, 향후 수요 둔화를 언급했지만 양호한 실적이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으로 상승세는 유지했다. 도미노피자(+4.89%)도 양호한 실적 발표로 상승 했다. 그러나 캐터필라(-3.03%)는 중국에서의 판매가 가격 경쟁으로 위협을 받고 있다고 발표한 이후 하락 했다. 바이오젠(-2.52%)은 양호한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향후 실적에 대한 부담을 언급하자 하락했다. AT&T(-4.08%)는 부진한 실적 발표로 하락 했다. 보잉(-0.39%)은 기대에 부합한 실적 발표하며 상승했다. 장 마감 후 실적 발표한 MS(-0.34%)는 2% 페이스북(-0.65%)은 5%, 램리서치(+0.34%)는 3% 상승 중이며, 테슬라(-1.99%)는 보험권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다. 다만 자일링스(+1.87%)는 시간외로 8% 넘게 급락 중이다.

옥시덴탈(-0.58%)은 셰브론(-3.07%)이 인수를 발표한 아나다르코 페트리움(+11.58%)에 대해 인수 의사를 표명하자 경쟁으로 인한 금융 부담 이슈로 셰브론과 동반 하락 했다. 한편, 코노코필립스(-2.63%)와 EOG 리소스(-2.50%)는 관련된 M&A소식에 상승 출발 했으나, 유가하락 여파로 약세 전환 했다. 솔름베르거(-3.60%)와 할리버튼(-3.34%) 등 원유서비스업종도 동반 하락했다

####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2.00%	대형 가치주 ETF(IVE)	-0.27%
에너지섹터 ETF(OIH)	-4.04%	중형 가치주 ETF(IWS)	+0.13%
소매업체 ETF(XRT)	+1.68%	소형 가치주 ETF(IWN)	+0.26%
금융섹터 ETF(XLF)	-0.11%	대형 성장주 ETF(VUG)	-0.19%
기술섹터 ETF(XLK)	+0.04%	중형 성장주 ETF(IWP)	+0.07%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1.08%	소형 성장주 ETF(IWO)	+0.27%
인터넷업체 ETF(FDN)	-0.43%	배당주 ETF(DVY)	-0.05%
리츠업체 ETF(XLRE)	+0.70%	신흥국 고배당 ETF(DEM)	-1.29%
주택건설업체 ETF(XHB)	-0.87%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0.74%
바이오섹터 ETF(IBB)	-1.09%	미국 국채 ETF(IEF)	+0.38%
헬스케어 ETF(XLV)	-0.11%	하이일드 ETF(JNK)	-0.08%
곡물 ETF(DBA)	-1.22%	물가연동채 ETF(TIP)	+0.35%
반도체 ETF(SMH)	+0.85%	Long/short ETF(BTAL)	+0.48%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497.89	-1.85%	-0.41%	+1.23%
소재	359.10	-0.56%	-1.29%	+5.09%
산업재	661.38	-0.31%	+1.52%	+6.56%
경기소비재	953.13	-0.03%	+1.11%	+6.65%
필수소비재	584.96	+0.09%	+0.26%	+1.55%
헬스케어	1,008.77	-0.14%	-1.27%	-4.46%
금융	454.49	-0.14%	+0.12%	+7.14%
IT	1,383.80	-0.01%	+2.23%	+7.37%
커뮤니케이션	167.34	-0.75%	+1.12%	+5.32%
유틸리티	292.98	+0.55%	+0.61%	-2.04%
부동산	221.69	+0.77%	+0.58%	-0.93%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 한국 주식시장 전망

### 기술주 반등 기대

MSCI 한국 지수 ETF 는 2.58% MSCI 신흥 지수 ETF 는 1.35% 하락 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 순매수(+182 계약)에도 0.40pt 하락한 283.85pt 로 마감 했다.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55.10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4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일 한국 증시는 달러/원 환율 급등, 기술주 부진 등으로 하락했다. 기술주 부진 요인은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 표명한 텍사스인스트루먼트 컨퍼런스 콜 내용과 LG 디스플레이 실적 발표에 따른 것으로 추정한다. 그런데 오늘 미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0.95% 상승을 하는 등 반도체 업종은 강세를 보였다. 특히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한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 관련 매출 급증으로 예상보다 양호한 결과를 내놓는 등 긍정적인 내용이 나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 증시에는 우호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한다.

한편, 달러/원 환율은 오늘도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일 원화 약세 요인은 달러 강세, 호주 물가 부진에 따른 이머징 통화 동반 약세, 중국 정부의 경기 속도 조절 등에 기인 한 것으로 추정한다. 오늘도 달러화는 유로화가 독일 경제 지표 부진과 미-EU 무역분쟁 우려 등으로 약세를 보이자 강세폭이 확대돼 2017 년 5 월 이후 최고치를 보였다. 여기에 캐나다 중앙은행이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를 표명하며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지속한다고 발표한 점도 원화 약세 요인이다.

이를 감안 외국인 수급 불안 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돼 한국 증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달러 실질실효환율이 고평가 영역에 위치해 있어 달러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돼 외환시장으로 인한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는 제한될 것으로 전망한다.

## 주요 경제지표 결과

### 독일 경제지표 부진

4 월 독일 Ifo 기업환경지수는 전월(99.7)이나 예상치(99.9) 보다 둔화된 99.2 로 발표되었다. 브렉시트 지연 및 미국의 자동차 관세 부과 우려 등이 심리적인 영향을 준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ZEW 경제전망 지수 등이 견고해 향후 경제 활동은 완만하게 회복 될 것으로 전망한다.

## 상품 및 FX 시장 동향

### 달러 강세 지속

국제유가는 미국의 이란에 대한 제재 강화속에 사우디 아라비아가 선제적으로 증산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하자 하락 했다. 더불어 EIA 가 지난주 미국 원유재고가 550 만 배럴 증가 했다고 발표한 점도 하락 요인이었다. 다만, 가솔린 재고가 210 만 배럴, 정제유가 70 만 배럴 감소해 여전히 수요 증가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 낙폭은 제한되었다.

달러화는 독일의 경제지표 부진에 따른 유로화 약세로 2017 년 5 월 이후 최고치를 보였다. 한편, 시장 참여자들은 금요일 미국 1 분기 GDP 성장률에 대해 2.2%로 전망하는 등 견고한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점도 달러 강세 요인 중 하나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가 할리 데이비스 실적 발표 이후 EU 에 보복 하겠다고 언급해 향후 미-EU 무역협상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점도 부담이다.

국채금리는 호주의 물가지표 부진, 캐나다 중앙은행의 완화적인 통화정책 등으로 하락했다. 더불어 5 년물 국채입찰에서 응찰률이 12 개월 평균(2.42 배)를 넘어선 2.44 배를 기록했고, 간접입찰도 12 개월 평균(59.9%) 보다 높은 61.5%를 기록해 국채수요가 높아진 점도 하락 요인 중 하나였다.

금은 달러 강세에도 불구하고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한 부담으로 상승 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달러 강세에도 불구하고 보험권 혼조세를 보였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0.64% 하락 했으나 철근은 0.08% 상승했다.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65.89	-0.62	+2.65	Dollar Index	98.076	+0.45	+1.10
브렌트유	74.57	+0.08	+3.97	EUR/USD	1.1152	-0.67	-1.27
금	1,279.40	+0.49	+0.17	USD/JPY	112.2	+0.30	+0.12
은	14.996	+0.88	-0.01	GBP/USD	1.2901	-0.29	-1.09
알루미늄	1,872.00	+0.32	+0.38	USD/CHF	1.0206	+0.03	+1.00
전기동	6,448.00	+0.64	-0.49	AUD/USD	0.7012	-1.27	-2.33
아연	2,742.00	-0.22	-5.45	USD/CAD	1.3493	+0.52	+1.14
옥수수	356.00	-1.18	-3.20	USD/BRL	3.9906	+1.76	+2.21
밀	438.50	-1.46	-2.23	USD/CNH	6.7352	+0.09	+0.86
대두	868.75	-0.77	-3.66	USD/KRW	1150.90	+0.80	+1.42
커피	92.35	-0.97	-0.65	USD/KRW NDF1M	1155.10	+1.16	+2.11

10 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 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98.076	+0.45	+1.10	스페인	1.070	-4.30	-3.20
한국	1.1152	-0.67	-1.27	포르투갈	1.167	-3.10	-3.80
일본	112.2	+0.30	+0.12	그리스	3.284	-2.50	-2.50
독일	1.2901	-0.29	-1.09	이탈리아	2.632	-4.10	+2.10